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방법론적 모색*

박순성(동국대학교 교수)

고유환(동국대학교 교수)

홍 민(동국대학교 연구교수)

1. 문제의 설정

1990년대 이후 북한사회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들이 활발히 논의되어왔다. 경제생활 차원에서 주민들의 국가 의존도 약화와 시장 의존도 증대, 관료문화와 실천코드의 변화, 경제관념 및 심성의 변화, 노동 및 직장에 대한 태도 변화, 정치생활과 집단적 도덕규율의 형식화 등과 같이 생활방식, 의식, 태도에서 나타난 다양한 변화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극단적인 기아 체험과 일상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주민들이 체득한 체험적 진실이 가져다준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장터문화’의 형성, 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연결망 및 정보유통의 활성화, 빈부격차의 확대와 사회계층화, 가족구조 변화, 교육

* 이 논문은 2007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습니다(KRF-2007-322-B00006).

일상의 변화, 세대 간 가치 변화, 도시 기능과 주거문화의 변화 등은 모두 이러한 주민 생계 일상의 고달픔 및 어려움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2003년 종합시장 개설을 비롯한 국가의 각종 법적·제도적 조치들은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는 북한 지도부의 통치 현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변화를 제도 영역 안에서 최대한 관리하려는 정책 의지도 보여준다. 이처럼 주민 일상생활의 변화는 통치담론, 경제관리, 사회정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도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쳐왔다. 결국 이런 상황들의 전개는 북한연구에서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북한사회의 지속과 변화를 논하기 힘들게 되었음을 웅변한다.

그러나 현 시기 북한연구가 이런 변화하는 북한사회의 실태와 본질, 그리고 예측에서 적절한 해석력과 방법론적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여전히 많은 의문이 있다. 그 원인으로 우선 북한연구가 지금까지 보여 왔던 연구시각, 연구방법의 문제점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그보다 사회의 움직임에 섬세하게 감지하고 깊이 해석해 내려는 지적 상상력이 아직 다양하게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현실 인식과 방법론적 시도에서 북한연구가 진정한 성찰성과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물음과도 직결된다. 북한사회의 다양한 면모를 적절하게 포착할 수 있는 연구관점의 조율과 방법론의 개발이 지체되고 있지 않은가를 성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북한사회의 지속과 변화, 다양한 면모들을 보는 창(窓)으로 북한 일상생활에 주목할 것을 제안한다. 사실 북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심은 특정한 연구 패러다임의 새로운 제

시나 방법론적 도약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그간 북한연구에서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일상 영역을 북한 이해의 중요한 연구대상 또는 주제로 조명하는 한편, 이를 통해 사회에 대한 해석적 다양성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는 일상생활을 관점과 주제로 설정하기 위한 개념화, 일상의 영역에 접근하기 위한 연구전략, 방법론, 분석틀 등을 고민하면서 북한사회를 좀 더 입체적이고 다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가능한 수준에서 북한사회의 거시구조적인 흐름과 일상의 미시적인 역동성을 분석적으로 연계해 이 둘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연구목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과정은 필연적으로 과거 수행되어온 북한연구에 대한 방법론적 전회(前悔, self-reflection)를 수반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일상생활은 주제 영역으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인식과 관점이라는 측면에서는 인식론적 성찰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다시 말해 일상생활 연구의 미덕은 새로운 주제의 발굴에서도 분명 찾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기존에 익숙했던 인식과 관점, 주제들에 대한 일상 차원에서의 비판적 재해석에서 훨씬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 일상생활 연구는 일종의 이종학(異種學, heterologies)적 성격을 지닌다. 북한 일상생활 연구는 북한연구가 채택해온 인식과 관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성찰하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서 북한이라는 타자에 관해 탐문하는 학문이다. 이 글은 이런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북한연구에서 일상생활 연구가 갖는 의미와 접근방법, 중심문제 등을 살펴본다.

2. 기존 북한연구에 대한 성찰과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인식의 과제와 연구의 성찰성

(1) 북한의 폐쇄성과 ‘우리 안’의 열망

과거 북한연구에서 북한사회는 종종 철혹 같은 어둠으로 표현되었다. 폐쇄적이어서 안을 들여다보기 어렵다는 점과 독재 체제와 억압적인 사회질서를 지녔다는 점이 강조된 것이다. 이런 어둠을 들여다보기 위한 투과 수단으로 전체주의적 항목이 주로 동원되었다. 이 항목들은 북한의 호전적 지도자와 억압적 정치체제를 ‘어둠의 핵심’으로 지목해왔다. 이로써 북한은 공공연하게 비합리적이고 폭압적인 타자로 간주되었다. 여기에 이데올로기적 프리즘이 더해져 체제의 악마성과 폐쇄성이 더욱 풍부하게 외연을 갖춰왔다. 우리의 북한 이해는 북한사회가 이후에도 어떻게 되어야 한다는 열망의 유형을 직간접적으로 투영한 가운데 이루어져 온 측면이 있는 것이다.

사실 상대를 적대적으로 타자화하면서 자기강화의 자양분을 얻는 분단체제의 속성 때문에 북한에 대한 애증에 찬 열망들은 북한 인식의 다양성을 제약했다. 최고지도자, 이데올로기, 권력투쟁 등과 같은 낮은 정치 중심적 연구주제들이 주로 채택되어왔고, 이 주제들이 차지하는 양적인 연구 비중만큼 주제들이 규정하는 북한사회의 억압적 이미지도 강화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다양성의 부족은 사회과학 연구 일반의 상식적 전제인 연구자의 성찰성에도 영향을 미쳐, 몇 가지 익숙한 연구 표상과 주제에 안주하는 방식으로 연구의 긴장도를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는 인식과 관점에 대한 성찰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인상주의

적 해석과 정책적 평가에 치우친 연구들이 양산되는 결과를 낳았다. 북한사회를 여타 사회과학이 주제로 삼는 대상만큼 ‘일반적 상품’으로 보지 않고 교정 대상이나 예외적 정책대상, 즉 ‘기형적 상품’으로 대하는 태도가 나타나기도 했다. 이런 태도는 다양한 이론적 시도와 분석기법의 적용을 가로막는 방법론적 편견으로 작용했다. 기형성을 암묵적으로 전제한 시각은 여타 사회와 차별적인 특수성 논리를 강화하는 연구결과를 가져온다. 더 나아가 풍부한 이론적 자원을 동원해 내는 상상력을 제약할 소지가 커진다.

이런 문제점은 1990년대 들어와 북한이라는 연구대상의 변화와 북한연구 환경의 변화에 대한 방법론적 대응에서도 나타났다. 북한연구에서 현지조사의 어려움은 여전하지만 탈북자 면접 등을 통한 직간접적인 질적 연구의 환경은 일정 정도 개선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식량난 이후 우리 사회의 북한에 대한 관심이 좀 더 구체적인 실태를 요구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민주화 이후 냉전적 검열이 완화되면서 그간 억제되어 있던 북한에 대한 정보 욕구도 높아졌다. 이런 환경적 변화는 대중의 북한 이해 욕구가 최고지도자나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사회경제체제를 넘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북한 현실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북한연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다양한 응답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2) ‘통치’의 관점과 아래로부터의 관점

기존 연구들이 주로 관심을 기울인 주제를 살펴보면, 정치 - 군사적 주제에 대한 관심이 어느 것보다 높았다. 물론 정치 - 군사적 주제의 비중이 높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북한사회에서 정치 - 군사적 요인의 규정력이 크다는 현 실태를 반영한 자연스러운 연구 경향

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지도자, 이데올로기, 정치체제 등에 대한 이해에 비해 그 통치의 대상, 즉 대다수 주민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국가와 사회를 이분법적으로 구분해 어느 일방을 우위에 두는 시각을 통해 더욱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이런 접근은 정치체제에 대한 모델화를 그대로 사회에 투영하거나 사회의 현상을 정치체제의 특징으로 환원해 설명하는 방식으로 나타나고는 했다.

물론 이러한 정치체제에 관한 논의조차도 정치체제의 속성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함축성을 담기보다는 통치의 관점에서 통치 행위의 현상적인 이미지를 묘사하는 개념화가 많았다. 더욱이 통치의 관점은 많은 것을 생략하게 한다. 권력이 어떻게 사회로 침투·관철되고 미시화되는지, 또는 어떻게 위로부터의 정치적 의도가 아래에서는 좌절 또는 변형되는지를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또 개인이 일상에서 어떻게 국가와 권력을 경험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했다. 오히려 암묵적으로 사회를 정치체제로부터 분리하거나 혹은 사회를 정치체제에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위상으로 취급한 측면이 있다. 그 결과 사회는 정치체제 모델에 의해 규정되는 지위로 전락하거나 최고지도자의 인격성으로 상징될 뿐이었고, 사회의 구체성과 재생산 구조, 자체의 변화 동학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관심이 미약했다.

최고지도자, 정치체제, 이데올로기, 노선·정책 등 위로부터의 통치 관점에서 채택된 연구주제는 당과 국가기구, 그것을 장악한 소수 지배 집단에 의한 지배와 통제, 그리고 동원의 면모에만 집중할 뿐이며, 사회 및 일반대중은 기껏해야 지배와 억압의 대상이나 탄압의 희생자로 취급되기 쉽다. ‘단일화된 사회(monolithic society)’의 이미지 속에서 국가의 광범위한 통제력과 권력의 강제성을 사회와의 이분법 속에서 보

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당 - 국가가 국가조직의 중·하위층은 물론이고 지방, 노동현장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사회조직과 그 대안들을 선점하고 있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지배이데올로기는 물리적 통제수단을 뛰어넘어 개인의 사고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은 대부분 경험적이기보다는 연역적이다. 사회를 국가의 통제질서와 행정망에 흡수된 원자화된 개인들의 집합체 정도로 은연중에 전제한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기에서 사회와 개인들의 경험적 공간은 존재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기 일쑤이다. 나아가 북한사회의 재생산 과정을 파악하는 데서 ‘위로부터’의 의도와 과정만을 일면적으로 조명할 위험성이 높다. 그러나 국가를 사회와 분리된 존재나 우월적 존재로 보는 시각은 한 사회의 재생산 메커니즘을 총체적이고 동태적으로 이해하는 데서 한계를 갖는다. 거대한 존재로 나타나는 정치와 권력기구의 근저에 그 어둠의 이미지와는 다른 질감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존재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삶들은 국가라는 억압성으로는 다 포괄하지 못하는 다양한 실천과 전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북한의 일상생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3) 공식 담론과 일상의 질서

북한이 생산하는 공식 담론과 실제 현실을 분석적 여과 없이 동일시하는 시각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폭압적 권력에 길들여진 파동적 인간상이나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주조된 인간상은 현실과의 대비 속에서 여과되어야 한다. 북한 공식 담론에 가려진 ‘예외적 정상(the exceptional normal)’ 또는 ‘이례(異例, anomaly)’를 발견하려는 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례는 작은 부분이거나 일회적으로 보이지

만, 거대한 공식 담론에 의해 가려져 있는 일상 차원에서의 정상적인 사회적 긴장관계를 엿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생생한 경험세계를 볼 수 있는 자료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북한 연구의 경우, 이처럼 이례를 발견하면서 공식 담론 이면에 존재하는 사회적 긴장을 발굴해내는 분석적 해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실 공식 담론은 북한 지배집단이 기대하는 질서 논리로서 그들의 통치의지를 확인하는 텍스트는 될 수 있지만, 주민들의 일상적 선택과 실천의 세계관이라고는 단언할 수는 없다. 북한의 공식 담론은 구체적인 노선이나 정책으로 표명되는 것을 통해 확인되고 설명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삶의 태도는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텍스트이다. 이런 문제의식은 공식 담론이 지배집단의 기대와 지향을 담아 실제로 사회질서를 정향하는 힘을 어느 정도 가질 수는 있으나, 주민들의 세계관마저 지배하는 일상의 질서로 기능하고 있는가 하는 물음에는 여러 분석적 여과가 필요하다. 이것은 대다수 주민을 공식 담론의 피동적인 수용자로 전제하는 발상보다는 오히려 역으로 주민들의 일상적 실천과 삶의 전략이 지배집단의 공식 담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연구는 국가의 단성적 목소리뿐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채집하고 해석하는 방법론과 분석기법에서 좀 더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개인의 울림도(sonority)를 높인다는 것은 사회를 움직이는 다양한 실천들에 대한 하나의 횡단적인 독해(transversal reading)를 의미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북한연구는 사회를 움직이는 실천들에 대해 심도 있게 천착하기보다는 주로 이데올로기와 공식 담론의 ‘외침’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오히려 국가의 ‘외침’과 주민 일상의 ‘속삭임’을 상호 교차해서 보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북한 이해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베버(M. Weber)의 표현을 빌리자면 “유일신의 외양 아래에 존재하는 다신교적인 은밀한 관행과 사고방식”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4) ‘타자’의 구성과 성찰적 북한연구

북한연구를 위해서는 북한이라는 타자를 구성하는 북한 연구자의 존재론적 한계와 이에 대한 성찰을 필요로 한다. 분단 역사를 살아왔고 살고 있는 학자로서의 존재, 그 존재의 시선은 결코 타자(북한)로부터 객관화된 시선이 아니다. 그 시선 자체가 이미 분단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다름’을 보고 있는 우리 자신의 시선, 그 시선이 재현하는 분단과 북한사회도 연구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북한연구방법론은 북한을 대상으로 한 기능적 차원의 ‘관찰배율’ 조절이나 이론적 세공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시선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것으로부터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북한 연구자는 남한의 학문체계 전반에 대한 성찰을 운명적으로 수행해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사실 한국에서의 본격적인 근대학문의 형성은 대부분 분단사(分斷史)를 관통하며 형성되어 왔다. 적대와 대립의 질서를 배경으로 형성되어온 것이다. 그만큼 남북한 양 체제는 자기편의 정당화를 위하여 학문을 이용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의 존재를 무시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준거의 틀 안에 갇힌 학문에서 자유롭지 못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북한연구가 자신이 직면해왔던 학문적 굴레를 드러내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중요하다.¹⁾

북한연구의 인식론적 성찰은 크게 세 부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나’와 ‘너’,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인식이다. 이는 북한(‘너’)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 우리 내부(‘나’)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문제, 그리고 미래의 공동체상(‘우리’)에 대한 인식의 문제이다. 이런 세 가지 차원의 인식이 필요한 것은 북한연구가 단순히 북한만을 바라보는 일방향적 연구도, 통일만을 기능적으로 사고하는 연구도 아님을 뜻한다. 그보다는 분단체제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성찰적 학문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철학적·실천적 학문이기 때문이다.

우선 인식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우리 내부의 문제, 즉 남한사회의 문제를 북한연구 범주에서 새롭게 문제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인식론적 차원에서 우리 내부의 문제는 작은 범주에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외교정책의 접근시각이 되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단 정체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된다. 그것은 일반 국민이 가진 인식체계를 비롯해 북한 및 통일 연구자의 시각과 인식체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리 내부의 의사소통 문제를 포괄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북한연구는 항상 비판적·성찰적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단지 연구절차와 대상에 대한 주의 깊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북한연구의 시각과 접근이 분단체제의 정치적 이념 지형에 의해 일정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는 점, 또 연구과정이 늘 그것을 경계하는 긴장을 안고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고 성찰적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북한이란 연구대상과 연구자가 갖는 일종의 존재론적 관계에 대한 성찰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북한

1) 조한혜정, “분단과 공존: 제3의 공간을 열어 가는 통일교육을 지향하며,”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345쪽.

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그 자체로 연구자 자신을 포함하는 인식 주체와 연구대상인 객체와의 상호구성성을 자각하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과 가능성

(1)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필요성

일상생활의 관점은 북한사회를 미시적으로 접근한다는 관찰배율의 문제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북한사회의 구체적 재생산 구조를 일상의 차원에서 발견·해석하고, 그것의 장기적 존재과정이 지닌 힘과 역동성을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연구대상이나 주제에 대한 세부적 묘사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 배율이나 담론으로는 포착하거나 설명하기 힘든 일상의 구체적 실천들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이 어떻게 거시적 사회동학과 연동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지방, 공동체, 개인의 다양한 삶의 방식이 사소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움직임, 변동에 지속적인 변수들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즉, ‘아래로부터의 역사(history from below)’라는 관점, 일상생활에 주목하는 접근은 단순히 아래층에서 사회를 보려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층에서 이루어진 일이 때로는 지도자, 중앙관료의 힘보다 사회의 모습을 결정짓는 데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해왔음에 주목하는 것이다. 이런 시각은 북한사회가 외면적으로 보이는 억압, 고립, 단절, 그리고 동원의 격렬함 이면에 다양한 사회적 관계의 긴장을 함축하고 있는 세계임을 인정한다.

그러한 긴장의 사례들은 단순한 개인적 에피소드로 그치는 것이 아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한 사회적 실천과 관계 속에서 북한사회가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어떻게 국가와 권력이 의도하는 기대와 전략을 각 행위자들이 일상의 필터(filter)를 통해 여과해내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변형해내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위로부터의 통치담론 질서 아래서 일상의 미시적 질서가 장기적 과정을 통해 어떻게 국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보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개인과 집단은 은밀하게 또는 공공연하게 국가 제재의 안과 밖에서 공식적인 규칙과 모순되는 일을 해온 면모를 지닌다. 이는 국가의 억압성과 계획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한 개인 및 공동체의 은밀한 생존 전략의 일환으로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지역 및 조직 내 사회관계에 내재된 규범과 가치 또는 위계를 통해 상호 생존의 연결망과 사회자본을 구축하는가 하면, 상급 당이나 기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협력과 공모, 그리고 관용의 수혜관계를 맺기도 했다. 또 개인과 공동체는 광범위한 수평적인 관계망을 통해서도 자신과 공동체의 보존을 위해 은밀한 연대의식을 공유하고 실천하기도 한다.

이러한 일상의 정치(everyday politics)는 계획경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억압적인 사회질서 내에서 자기보존과 생존의 조건을 마련해왔다. 은밀하지만 공공연하게 서로의 목계와 유대를 통해 전개되어온 일상의 정치는 1990년대 들어와 악화된 경제난 속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하면서 일종의 생존 일상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향후 북한체제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해하는 데서 이제 일상의 중장기적 힘과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게 되었다. 또한 과거 사회주의권이 체제전환 이후 지금까지 겪고 있는 사회적 갈등의 주제들도 모두 일상의 영역과 관련된 것들이란 점은 북한 연구에서 일상의 영역이 갖는 중요성을 웅변한다.

(2) 일상생활 관련 선행연구의 경향

사회주의 체제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해외 연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점차 활성화되어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일상’이란 관점과 개념화를 통해 다양한 연구성과를 생산하고 있다. 크게 주제와 접근방식에서는 과거 일상을 새롭게 발굴하고 해석하는 것과 체제전환 전후로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조명하고 대안을 찾는 접근이다. 또 연구방식에서는 각 분과학문별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각 학문분과가 협력해 공동의 연구성과를 지향하는 학제 간 연구로 대별할 수 있다.

분과학문별로 본다면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진 분과는 역사학이다. 역사학의 경우 구소련의 스탈린시기를 중심으로 해제된 과거 기밀문서나 지방 및 하급기관, 개인들의 일기나 증언을 사료화해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재조명하는 연구, 국가와 인민의 관계에 대한 연구 등이 두드러진다.²⁾ 한편 상징, 의례, 제의, 언어 등 인류학적 개념과 접근방식을 도입해 국가가 주민들의 일상을 제압하고 통제하고자 구사했던 각종 상징 및 의례, 그리고 주민들이 사적 영역을 통해 구사했던 다양

2) Fitzpatrick, Sheila, *Stalin's Peasant: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Collectivization*(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Hoffman, L., David, *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9~1941*(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Christian, David, *'Living Water': Vodka and Russian Society on the Eve of Emancipation*(Oxford: Clarendon Press, 1990); Fitzpatrick, Sheila,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Viola, Lynne, *Peasant Rev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Viola, Lynne, *Contending with Stalinism: Soviet Power and Popular Resistance in the 1930s*(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Wood, Elizabeth A., *The Baba and the Comrade: Gender and Politics in Revolutionary Russia*(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한 일상적 제의를 살펴보는 연구들도 있다.³⁾ 현실의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서는 부패나 연줄 문화의 역사적 기원과 과정을 살펴보거나,⁴⁾ 체제전환 전후 경제생활과 심성의 변화에 대한 연구⁵⁾ 등 과거와 현실을 연결하는 역사학적 분석이 진행되고 있다.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의 경우 크게 체제전환 이전의 사회가 작동하던 방식을 위로부터의 지배와 아래로부터의 일상적 저항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연구,⁶⁾ 그리고 1990년대 체제 전환 이후 러시아 및 동유럽 사회에서 발생한 문제를 주민 경제생활 및 경제심성 변화 차원에서 분석하는 일상생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⁷⁾ 이 연구들은 대부분 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존재하는 분석개념과 이론 등을 동원해 전방위적으로 일상생활세계를 학문적으로 개념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국내 북한연구에서도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조명한 연구들이 이루

-
- 3) Brooks, Jeffrey,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2000); Lane, Christel, *The Rites of Rulers: Ritual in Industrial Society The Soviet Case*(Cambridge·New York·New Rochelle·Melbourne·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Karen, Petrone, *Life Has Become More Joyous, Comrades: Celebrations in the Time of Stalin*(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Smith, Michael G., *Language and Power in the Creation of the USSR, 1917~1953*(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8).
 - 4) 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 (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5) Humphrey, Caroline, *The Unmaking of Soviet Life: Everyday Economies after Socialis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Huang Shu-min, *The Spiral Road: Changes in a Chinese Village Through the Eyes of a Communist Party Leader*(Second Edition) (Boulder: Westview Press, 1998).
 - 6) Shlapentokh, Vladimir,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7) Arnstburg, Karl-Olov and Thomas Borén(ed.),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Stockholm: Södertörns högskola, 2003).

어저 왔다. 일상에 대한 개념화 수준에 따라 분류해보면, 첫째 북한 일상생활세계를 특정한 주제로 영역화하여 개념화를 시도한 연구,⁸⁾ 둘째 특별한 개념화는 없지만 일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북한주민 실태를 보여주는 연구,⁹⁾ 셋째 주민생활 및 일상적 측면을 다룬 연구물,¹⁰⁾ 마지막으로 북한체제 동학과 일상생활세계를 연계한 연구물¹¹⁾

-
- 8)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5); 이정운,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문화재생산: 노동자 순응, 갈등, 저항 행위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1호 (2004.4); 조정아,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서울: 통일연구원, 2005);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김종옥,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9)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서울: 오름, 2003).
- 10) 송광성 외, 『북한 청소년 생활』(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손기웅·길태근,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통일문화연구(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이금순,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문화연구(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주강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통일문화연구(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주강현, 『북한의 민족생활풍습』(서울: 민족원, 1999); 김귀옥 외,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당대, 2000);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박현선,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조정아, 『경제난 이후 북한 문화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6);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최완규 외,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선인, 2006);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김종옥,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등이 있다.

그러나 국내의 일상 관련 북한연구는 일상생활세계에 대한 독자적 개념화가 미흡한 상태에서 일상이라는 용어를 주민생활이란 차원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일상생활에 대한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적인 논의와 연계한 개념화는 아직 미약한 실정이며, 인식과 방법의 차원에서의 이론화 시도도 이렇다 할 성과로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만큼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대체로 특정 거시적 주제를 설명하는 근거자료로 용어가 부분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실상 본격적인 일상생활 연구라기보다는 유사 선행연구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 북한 일상생활 주제의 연구는 다양한 전공분야를 연계하는 인식론적·방법론적 시도 차원보다는 주민생활에 대한 실태 분석 차원에서 주요 사례를 묘사하거나 설명하는 사회 분야 연구의 일종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인문사회과학(인류학, 역사학,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등)에서 과거에 축적한 다양한 개념 및 이론을 적용하고 원용해 개념화를 통한 방법론의 구축을 시도한 경우는 사실 극히 드물다. 그런 점에서 국내 북한연구에서는 일상생활 연구를 위한 개념화, 인식론적·방법론적 논의가 활성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연구주제와 시기의 측면에서도 대체로 1990년대 이후 경제난과 시

관한 연구”;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 11)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재진·조한범·장경섭·유팔무,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서울: 생각의 나무, 1999);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서재진,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조한범,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05).

장화에 따른 주민 경제생활의 변화와 사회적 일탈의 증가를 주로 일상생활 연구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도 북한사회에서 일상생활세계의 변화와 지속을 1990년대 이전부터 중장기적인 시공간의 관점에서 추적하고 분석하는 연구나 일상생활이라는 공간을 제도, 사회통제, 규범, 질서 등의 사회구조적 측면과 개인들의 다양한 실천과 행위 등이 교차하는 사회적 공간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이론화하는 연구는 아직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자료 활용에서도 일상생활 연구를 위한 새로운 자료 발굴이나 생성, 그리고 해석 기술에서는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실정이다. 1990년대 탈북자의 인터뷰를 활용한 주민생활 실태 파악과 묘사는 많이 늘어났지만, 대체로 엄밀한 인터뷰 방식이나 구조화된 질문지, 해석적 고민 등을 통해 질적 연구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런 미진함은 일상생활에 대한 인식론적 개념화가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 사실 인식론적 개념화는 일상생활 자료를 어떻게 발굴하거나 생성할 것인지의 방법론과 직결된 문제이다. 일상 또는 일상생활이 무엇인가라는 개념화 없이 일상생활을 들여다보기 위한 방법론이 나올 수는 없기 때문이다. 또한 이는 텍스트에 대한 해석 및 의미 부여와도 직결된다.

결론적으로 기존 일상생활과 관련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북한체제의 동학 및 변화에 대한 관심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시도된 연구였는데도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이 갖는 학문적 의미에 대한 개념화를 기초로 다양한 방법론적 상상력을 발휘해 체제변화와 일상생활의 상호작용을 주목하는 연구는 아직 다양한 성과로 제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일부 유사한 방향의 연구들도 체제 변화와 일상생활세계를 연계하는 이론적 모색을 시도함으로써 정치한 분석의 가능성을 열기보다는

주로 이 둘 사이의 개연성 정도를 언급하는 데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3. 일상생활 연구의 경향과 주요 쟁점

1)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경향

사회과학 전반에서 일상생활은 1970년대 이전까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사회과학에 깊게 각인된 합리주의와 실증주의는 과학이라는 엄밀성에 집착한 나머지, 인간 존재가 갖는 따뜻함과 분열, 감정적 복잡성을 차단해왔다.¹²⁾ 이로써 사회과학이 인간으로부터 분리된 추상성에 강하게 이합집산했다는 비판이 줄곧 제기되었다. 한편 마르크스주의, 구조기능주의 같은 거대이론이 현실과 갖는 괴리와 그로부터 야기된 무력감에서 벗어나고자 ‘피와 살’로 이루어진 평범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측면도 있다. 그것은 계량적 조사연구와 통계적 분석이 갖는 문제와 더불어 거대이론의 개념과 용어들이 총체적인 사회적 삶의 핵심적 본질을 간과하거나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도 맞닿아 있다.

그 대안으로 미시이론이나 행위 중심적 이론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증대했다. 그간 나타났던 행위 중심적 이론의 주요 내용적 특징은 ① 행위자의 대면 만남이 사회생활의 중심 특징이라는 점, ② 사람은 창조적이고, 지적이며, 식견이 있다고 보는 점, ③ 어떻게 사회가 작동하는지 연구하기 위해 행위자의 상황 정의를 포착하려는 해석적

12) Maffesoli, Michel,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 Epistemological Elements,”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p.1.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점 등이다. 이런 특징을 관통하는 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이해는 실증성보다 행위의 의미를 통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른바 질적 접근방법의 재발견, 특히 생애적 접근방법(biographical method) 등이 사회현상 분석에 중요한 방법으로 채택되어야 한다고 본다.¹³⁾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의 관심은 바로 이러한 거대이론의 퇴조와 인간 행위에 대한 의미의 재발견이라는 학문적 전환을 배경으로 한다. 바로 인간 행위의 의미라는 차원에서 일상생활이 주요한 관점과 연구 주제로 등장하게 된다. 일상생활은 모든 사람에게 즉각적이고 비성찰적인 지식의 원천이면서도 주관적 체험이라는 측면에서 개별 행위자에게 복잡한 의미의 기초를 이룬다. 또한 일상생활은 자기보존과 삶을 꾸려가는 ‘인생이라는 연극(life-performance)’의 주요 무대라는 측면에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일반적 규범과 가치를 정식화하기 위한 의사소통과 호혜적 이해의 계기가 마련되는 공간이다.¹⁴⁾

사회과학적 이해라는 것이 하나의 현상을 현상으로 보고 그것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출발로 삼는 것이라고 본다면, 행위와 의미에 대한 이해 없이는 우리가 실재를 보고 있다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단순히 시야를 아래로 돌린다는 관심의 전환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개인 활동을 이론 구성의 중심에 놓는다는 점에서 패러다임의 일정한 변화를 의미하며, 방법론적 전회로도 볼 수

13) de Querioz, Jean Manuel,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as a Perspective,"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p.31.

14) Bovone, Laura, "Theories of Everyday Life: a Search for Meaning or a Negation of Meaning?,"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p.51.

있다. 그것은 구조적 강제와 기계적 법칙성, 추상적 담론 등에 압도된 채 생명을 잃어버린 기존의 추상적 이론과는 분명히 다른 길을 지향하고 있다.

2) 일상생활 연구의 주요 쟁점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그 연구가 중요성을 지니는데도 개념화와 실제 적용, 그리고 의미화에서 다양한 난제에 직면해왔다. 일상 또는 일상생활에 대한 개념은 여전히 많은 경우 비명시적이고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다양한 분과학문에서 일상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개념화를 시도한 경우는 많지 않다. 크게 보면 사회학에서의 일상생활에 대한 개념화 시도와 역사학에서의 일상사적 접근이 보여준 ‘아래로부터’의 시각이 그나마 대표적이다.

그러나 사회학이나 역사학에서의 개념화 시도 역시 자신의 분과학문 내에서조차 통일된 일관성보다는 다의적이고 심지어 대립적이기까지 하다.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으나 일상 또는 일상생활이라는 영역이 기존 인문사회과학의 개념적 범주나 이론이 설정해놓은 경계 안에 포섭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호성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현실과 일상을 개념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상상력의 고민이 아직 미진한 측면이 크게 작용했다. 기존의 사회과학적 패러다임 내에서 대립적 축을 형성해왔던 인식론적인 이분법적 도식(개인과 사회, 주관과 객관, 구조와 행위, 거시와 미시, 지배와 저항)이 주는 강한 역학(力學)으로 인해 일상이 개념적 배회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1) 개념적 범주: 일상과 비밀상의 관계

우선 일상생활의 개념화에서 나타나는 난제로서 일상과 비밀상의 관계가 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일상의 개념화를 위해 동원되는 상대적 개념은 비밀상이다. 그러나 일상을 정의하기 위해 대립적인 비밀상이라는 대립적 개념을 끌어들었을 때 나타나는 인식론적 모호성과 존재론적인 모순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그 예로 일상에 대한 노베르트 엘리아스(Noberto Elias)의 정의를 살펴보면 이런 개념적 모호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표 1> 참조).

엘리아스의 구분을 따랐을 때, 우선 일상은 일반 민중에게만 존재하고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존재하지 않는지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권력을 가진 자’를 어떻게 범주화할지의 문제가 선행적으로 제기된다. 엘리아스의 정의처럼 국가 요직에 앉은 사람을 권력을 가진 자라고 단순히 정의할 수 있을까? 아마도 이런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실 권력 자체를 정의하는 것, 권력의 소유 여부를 정의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나름대로 장구한 사회과학의 논쟁적 과정을 소화해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최근까지 전개된 포스트모던의 이론적 경향은 권력과 일상의 관계를 소유나 지위의 관점에서 일차원적으로 보는 것을 힘들게 한다.

더 나아가 과연 ‘권력을 가진 자’에게는 일상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가령 최고지도자는 잠을 자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아내와 자식과 일상적인 잡담을 나누고 하품을 하고 가장과 남편과 아버지로써 일상을 갖지 않는 것일까? 상식적으로 얘기한다면 권력의 소유 여부, 계급적 지위 여부, 남자와 여자, 늙음과 젊음 등에 상관없이 일상은 모든 인간에게 존재하는 실존의 기본 토양이다. 다만 사회적 공간 내에서 개인의 위치와 사회적 관계의 수준에 따라 그의 일상은 개인

<표 1> 노베르토 엘리아스의 일상 - 비밀상의 관계 정의

	일상	비일상
1	평일	축일(휴일)
2	통상적인 사회 영역	특별한 비통상적인 사회 영역
3	(특히 노동자들의) 작업일	시민, 즉 노동하지 않고 이윤으로 화환롭게 생활하는 사람들의 생활 영역
4	민중의 생활	(왕, 왕자 및 공주, 대통령, 행정부 사람, 정당 지도자, 의회 의원, 경제 지도자처럼) 고위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
5	매일 생활이 이루어지는 영역	전통적인 정치적 역사 서술이 유일하게 적합한 것이라고 간주하며 ‘큰’ 사건이라고 파악하는 모든 것, 즉 역사에서의 주요한 국가적인 행위
6	사생활(가족, 사랑, 어린이)	공적인 혹은 직업적인 생활
7	자연적인, 자발적인, 성찰되지 않은 참된 체험과 사유의 영역	성찰된, 인위적인, 비자발적인, 그리고 특히 학문적인 체험과 사유의 영역
8	일상의식: 이데올로기적인, 소박한, 숙고되지 않은 잘못된 체험과 사유의 총괄 개념	올바른, 순수한, 참된 의식

자료: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서울: 민음사, 1998), 32쪽에서 재인용.

적 고유성과 일정한 사회적 맥락의 독특성 속에서 구성될 뿐이다.

이런 구분의 모순은 일상을 사적 생활로, 비밀상을 공적 직업생활로 구분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아마도 공적인 직업생활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하나의 일상적 과정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그것이 단지 비밀상적일 수 있을 때는, 가령 한 개인이 실업 상태라는 일상에서 취업이 되었을 때, 그 ‘특별한 순간’의 계기적 비밀상은 있을 수 있으나 곧바로 직장생활이 매일매일의 과정이 된다면 이제 그의 직장생활이 일상이 된다. 따라서 일상 속에는 사적 생활과 공적 생활이 모두 존재할 수 있으며, 일상은 개인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모두를 포괄한다. 따라서 단순히 공적 또는 사적이라는 구분으로는 일상을 정의할 수 없다.

이처럼 일상 또는 일상생활의 개념은 사회학 전통 내에서 강조점을 두는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어왔다.¹⁵⁾ 따라서 북한 일상생활을 연구하기 위해 일상을 지도자, 관료, 인민 등 북한의 모든 행위자를 포괄하는 인간의 존재론적 기초로 보는 관점이 필요하다. 이는 일상의 개념화를 위해 그 대립의 축으로 비밀상을 상징함으로써 발생하는 개념상의 모순적 대치를 피하는 길이기도 하다. 오히려 일상을 반복성과 수렴의 차원에서 봄으로써 단순히 일상을 변화의 잉태지로만 보는 것만이 아니라 완고한 지속성의 차원에서도 볼 필요가 있다.

(2) 주요 행위자와 관심 대상

보통 일상생활에 대한 학문적 접근은 하층계급을 대상으로 한다는 일반적 통념이 있다. 가령 역사학의 일상사, 미시사, 생활사 등은 주목하는 일상 행위의 주체로 서민이나 일반 대중을 주로 삼고 있다. 그것은 역사의 기록과 해석에서 제외되었던 ‘침묵하는 다수’인 대중에 대한 관심 때문이다. 사회과학에서도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은 물질문명, 자본주의, 산업화, 기계화, 권력,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일상적으로 소외당하는 존재이자 억압받는 대상인 일반 대중에 천착하는 경향이 있

15) 대표적으로 현상학적 전통에서는 “자연적 태도를 기초로 하여 경험, 사유, 그리고 행위가 상호 주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 마르크스주의 전통에서는 “개인의 재생산 활동의 총체”라는 점이, 그리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전통에서는 “자아의 형성, 발전, 표현의 환경으로서의 사회적인 상호작용 상황, 특히 대면적인 상호작용 상황”이라는 점이 특별히 강조된다. 이 외에 위르겐 하버마스(Jurgen Habermas)의 비판 이론에서는 일상생활이 합리화됨으로써 ‘상징적 재생산의 영역’으로 되었다고 봄으로써 그 축소된 기능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서울: 민음사, 1998), 35쪽.

다. 이는 일상생활을 주로 하찮거나 주목받지 못하는 ‘보통사람’의 생활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일상생활의 주요 행위자를 하층계급이나 일반 대중으로 한정할 경우 자칫 해석적 자기제약에 빠질 위험성이 높다. 가령 일상사에서 아래로부터의 시각이나 사회학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접근이 대중, 서민, 민중 등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경우, 단순히 사회나 국가를 일정한 계급적 위계, 지배구조의 위계로 상정하고 여기에서 하층을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일상의 영역은 사회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는 창(窓)으로서의 의미보다는 일정한 제한적인 계급적, 지배 스펙트럼의 틀에 한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 한편 실천이나 변혁이라는 목적의식적인 차원에서 일상을 해석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일상생활에 대한 비판과 일상생활에서의 실천이나 행위가 갖는 변혁의 가능성을 부정하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상생활을 하층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 관료, 인민 등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해당되는 공통된 존재론적 근거로 보는 것이 사회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데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볼 때, 일상생활이라는 창을 통해 사회 각 수준에 접근할 수 있고 전체를 관통하는 일상이라는 공통된 관심의 영역을 갖게 된다. 개인은 개인대로, 지배계급은 지배계급대로, 하층민은 하층민대로, 집단은 집단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일상적 삶과 조직의 운영과 업무가 있다. 따라서 사회전체의 평상 상태의 분석은 그대로 사회전체의 총체적 파악이 된다.

(3) 연구의 분석수준

일상생활 연구의 분석수준에 대한 문제는 앞선 쟁점과의 연속선상

에서 연구의 눈높이를 어디에 두고 볼 것인지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령 전통적 시각처럼 사회구조나 거시적 역사 흐름의 관점에서 조망할 것인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미시적 행위자의 경험적 세계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이 둘의 상호구성적인 변증법적 관계의 차원에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분석수준은 연구자가 제시한 주제와 이론적 문제에 적합해야 한다. 또한 분석수준에 부합하는 일차 자료를 얻을 가능성도 따져봐야 한다.¹⁶⁾

구조적 분석수준에서 일상생활은 행위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행위를 구조적 억압의 결과물로 해석하는 데 적합하다. 제도, 규범, 가치 등 구조적 조건이 일상에 부여하는 제약의 차원에서 보는 것이다. 그 반면 행위자적 분석수준에서 일상생활은 아래로부터의 경험적 차원에서 구조적 억압의 그늘에서 행위자들이 펼치는 다양한 실천과 전략이 갖는 가능성의 공간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개개인의 주관적 세계가 좀 더 깊이 있게 고려될 수 있다. 한편으로 구조와 행위자의 분석수준을 동시에 사용해 이 둘 사이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에 주목할 경우, 일상생활은 이 둘을 매개하는 중요한 실천영역의 의미를 갖는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을 어떠한 분석수준에서 볼 것인지에 따라 연구 설계에서 이론틀, 자료 취득, 해석 등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다만 어느 분석수준을 선택하든지 간에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기존의 인문사회과학적 인식 구조(개인/사회, 지배/저항, 구조/행위, 객관/주관, 거시/미시 등)에 대한 성찰을 기본적으로 요구한다. 가령 지배와 대중의 관계를 일상생활의 차원에서 볼 경우에는 분석수준을 어떻게

16) 스멜서, 닐, “기술적 묘사와 인과적 설명에 관한 비교분석 방법론,” 한국비교사회연구회 위임,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서울: 열음사, 1990), 229쪽.

설정할지의 문제가 도출된다. 일상생활은 개인의 행위를 전제했을 때 비로소 의미가 부여된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그러한 개인의 실천이 구조적 제약에서 자유롭지 못한 점은 일상생활이 구조와 행위의 분석 수준 사이에서 갖는 존재론적 위상이다.

(4) 연구 목표: 비판적 실천과 이해

일상생활 연구에서는 비판적 관점에서 보느냐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바라보느냐 하는 접근의 태도도 중요하다. 이는 일상에서의 대중의 실천을 부정적 전망에 근거해 볼 것인가, 낙관적 전망에 근거해 볼 것인가와도 밀접하게 관련된다. 가령 사회학적 논의에서 앙리 르페브르(Henri Lefebvre)와 미셸 마페줄리(Michel Maffesoli)로 대표되는 대조적인 시각이 그러한 태도의 양극단을 대표한다. 르페브르가 마르크스주의에 바탕을 두고 일상에 대한 비판에 중점을 두고 논의한다면, 마페줄리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전제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일상을 이해하고 일상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전자가 일상성의 억압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구조적 모순에 천착하고 대중에 의한 극복을 이야기한다면, 후자는 어떠한 선형적인 가치 평가나 도덕주의도 배격하며 일상성이 주는 억압적 소외를 경험하면서도 사람들이 어떻게 일상을 지속해가는지에 주목한다.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도 후자의 입장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일상의 가능성을 보는 시각이다. 즉, 일상에서 지배 권력의 규율망을 횡단하는 창조적 실천인 문화 활동을 미시 전복적으로 기존질서를 변혁하는 창조적 동력으로 보는 것이다. 일상적 삶을 중시하는 데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르페브르의 경우에는 ‘벗어나기 힘들어 보이는’ 근대의 억압성을 돌파할 창조성과 대안의 문제에서는 지나치게 현학적이고 추상적

이라는 한계가 있으며, 마페줄리가 보이는 대중에 대한 낙관은 과연 대중의 책략이 억압성에 어떻게 근본적인 균열을 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이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두 관점은 북한사회의 일상생활 인식에서도 억압적인 일상생활이 구성되는 것에 대한 ‘비판’에 목적을 둘 것인가, 아니면 일상생활에 대한 이해 자체에 목적을 둘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된다. 그 목적에 따라 북한 주민의 일상에서의 행위와 실천을 해석하는 시각과 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판을 위해 동원될 개념과 분석틀은 소외, 통제, 억압 등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해의 차원에서는 북한주민이 권력과 지배를 우회하며 재전유하는 다양한 실천전략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3) 일상생활 연구에 대한 일반적 비판과 반론

다양한 분야에서 일상생활 연구에 가해진 비판들을 살펴보면, 우선 구조에 대한 연구를 주관적인 경험에 대한 연구로 대체하려는 경향에 대한 비판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와 더불어 전체 사회에 대한 조망이 결여된 미시적 시각에 천착하고 있는 태도와 개념적 분석을 기피하는 반(反)분석적 태도 등에 대한 비판이 존재한다. 이러한 비판은 보통 일상생활 연구가 개인의 주관적 체험세계를 중요한 해석적 텍스트로 삼는 데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상생활 연구는 분과학문별로 다양한 접근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하나의 고정된 접근방식으로 특징화하기 힘들다. 개인의 주관적 체험세계를 중요한 텍스트로 삼는다는 공통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구조와의 연계성은 물론 분석적 방식도 연구전략에 따

라 얼마든지 결합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를 결코 주관에 함몰된 개인사에 대한 천착으로만 특징화할 수 없다. 오히려 거대 추상이 방기한 개인에 대한 발견과 주목이며, 그 개인이 구체적으로 구조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미시적 기초임을 강조한다는 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가 구조를 중심에 놓거나 거시를 표방하는 연구가 갖는 결함을 드러내고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다. 추상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조나 사회변동, 거시사관이 대중의 일상생활을 간과하거나 왜소화시킨 부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의미화하는 것에서 일상생활 연구가 갖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거시적 변동 이론이나 구조적 접근만이 분석적이고 사회적 현상에 대한 적절한 예측과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가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일상생활 연구에 대한 비판과 반론 사이에는 기존 사회과학 내부의 해결하기 힘들어 보이는 난제, 즉 일상/비일상, 지배/저항, 구조/행위, 거시/미시, 객관/주관 등의 대립적 구도가 존재한다.

이런 학문적 이분법들이 사회를 분석하는 데서 일정한 설득력과 명징성을 부여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분법에는 인과적인 과학주의적 논법에 포섭되지 않는 잉여의 현상이나 행위를 무의미한 것으로 배제하는 측면도 있다. 대립적인 이분법 구도가 우리의 인식체계를 구성해온 데에는 나름대로 역사적 과정이 있다. 이른바 이성, 합리주의, 근대성 등이 설정해온 과학주의적 틀이다. 이 개념들이 안내하는 과학주의가 모든 것을 명확한 도식과 인과성 속에서 배치하려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모호성, 복잡성, 불명확성으로 남아 이에 학문적 인식 범주에서 의도적으로 간과되어왔다.

그러나 일상생활은 이성, 합리성, 근대성 등으로 포섭되지 않는 비

이성이나 비합리성, 전근대적인 것들이 뒤섞여 있는 세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인과적인 과학주의 논법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 즉 주관적 세계를 해석하는 데서 일상생활 연구의 미덕이 있다. 이런 미덕들을 좀 더 살펴보면, 우선, 거시사관, 거대담론, 구조 등이 발전과 진보,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가치 속에서 획일화해왔던 세계관에 대비해서, 일상생활 연구는 인간에 대한 애정과 가능성을 발견해내는 역할을 한다. 그것은 특정 가치와 세계관으로 설명되는 개인들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일상에서 자신이 직면하는 현실을 헤쳐나가는 개인들의 실천이 갖는 다양성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연구 내적으로 경험세계에 밀착된 이론 구성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상생활은 연구자 자신에게도 존재론적 조건이다. 그런 면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인식론적 측면에서 ‘인식이 단지 자기 준거적과 정일 따름’이라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준다. 일상생활이라는 연구대상과 연구자 자신이 일상생활이라는 공통된 자기준거적 관계 속에서 만나게 된다.¹⁷⁾ 그러나 대부분의 거대담론과 거대이론은 일상적 경험 이상의 것을 염두에 두고 가정하면서 구조를 객관적이라는 명목으로 추상적 구조물로 구축하려는 속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일상적 경험 이상의 이론이나 담론이 갖는 획일성의 위험을 경계하는 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 연구는 학문 영역들 사이에 존재하는 기존의 엄격한 경계를 넘어서 철학, 심리학, 사회학, 역사학, 정치학, 경제학, 민속학, 문학 등 관련 학문들과의 종합적 연구, 즉 탈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¹⁸⁾ 이런 일상생활 연구가 제기하는 학제

17) 이남복, “루만의 구성주의 체계이론: 실재론과 관념론을 넘어서,” 『담론 201』, 10권 2호(2007), 152~153쪽.

간 연구의 필요성은 북한연구가 종합학문 또는 지역학을 표방하며 학제 간 연구를 명시적으로 나름의 연구 전략으로 채택하고 있는데도 다양한 탈학제적 연구의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도 성찰적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간 북한연구가 보여온 형식적이거나 느슨한 탈학제성을 실질적인 탈학제적 연구로 전환시키는 데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의미를 갖는다.

결국 일상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은 결코 하층 민중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협소하게 이해될 수 없다. 우선 ‘아래로부터’라는 의미는 그간 역사나 사회를 보는 시각이 목적의식적인 거시적 시각 속에서 엘리트, 지배계급, 남성 등의 주류 중심적 시각에서 조망된 데에 대한 비판적·대안적 의미를 내포한다. 따라서 일상은 단순히 하층 민중에 주목한다는 것 이상으로 기존의 지배적 담론, 소위 주류적 관점에 의해 구조화된 학문적 시각, 상징적 구분체계 등이 재생산하는 사회 질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과정으로도 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비판과 이해를 결합하는 학술적 시도라는 측면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러한 일상연구의 미덕과 개념화의 난제가 현 시기 북한연구에 주는 함의는 크다. 우선 북한연구가 현재 위치하고 있는 연구 지평과 관련해 기존 연구시각과 방법론에 대한 성찰과 보완의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이다. 두 번째는 아직도 일정하게 온존해 있는 냉전적 관점에 대해 일상생활 연구가 북한사회를 추상적 이념보다는 구체적 현실에 대한 이해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편으로 우리 자신은 물론 북한 주민들의 주관적 세계에

18)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 27쪽.

대한 이해 없이 민족이나 통일이라는 목적의식적 당위를 설정하고 접근하는 태도에 대한 성찰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4. 북한 일상생활 연구의 지향과 과제

1) 연구의 의미와 방향성

(1) 일상과 비일상의 구분을 넘어

일상과 비일상은 개념적·실제적으로 경계선이 모호하다. 개인에게도 어느 시기에 일상적인 것이 어느 시기에는 비일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은 고정된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의 반복적인 양태와 성질에 해당한다. 일상의 반복성은 어느 순간 흐트러지기도 하지만, 결국 일상성은 그것의 평형상태를 찾는 관성을 가지고 있다. 결국 이러한 일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경우 일상을 비일상이라는 개념적 대립을 통해 설정함으로써 인식의 아포리아가 발생하게 된다.

일상생활이란 공적 생활에 대립되는 것으로서의 사생활이 아니다. 또한 그것은 질서화되어 있는 공식적 세계에 대립되는 무질서한 생활도 아니다. 최고지도자, 당간부, 일반 주민을 막론하고 모두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다. 일상성이란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개별적인 삶을 매일매일의 테두리 속에서 조직하려는 일상의 관성을 의미한다. 그것은 삶을 매일매일의 반복가능성, 시간배분 속에서 배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상성이란 개인의 역사를 지배하는 시간의 조직이며 리듬이다. 또한 일상생활에는 반복도 있지만 특별한 경우도 있고, 또 판에 박힌 일뿐 아니라 축제도 있다. 따라서 일상생활이란 비일상적인 것,

축제적인 것, 비범한 것에 대립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직 모든 것은 일상성을 통해 일상생활에 수렴된다.

일상성이 사람들을 일과 행위와 생활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리듬으로 조직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일상생활은 다수의 사람들이 그 리듬 밖으로 쫓겨날 때에 붕괴된다. 대표적으로 전쟁이나 혁명은 일상생활을 붕괴시킨다. 그러나 일상성은 곧바로 이러한 전쟁이나 혁명의 비일상조차도 압도한다.¹⁹⁾ 흔히 말하는 ‘사람은 교수대에서조차도 익숙해질 수 있다’라는 말은 일상성이 갖는 성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인간은 가장 예외적이며 부자연스럽고 비인간적인 환경 속에서조차도 생활의 리듬을 만들어낸다.²⁰⁾

가령 1990년대 중반 북한의 ‘고난의 행군’은 기존의 익숙한 주민의 일상생활을 붕괴시켰다. 그러나 계획경제가 중심이 되어 영위되던 일상생활이 시장교환이 중심이 된 일상생활로 변화하면서 곧바로 새로운 일상생활의 균형이 만들어졌다. 인간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자기보존의 일상성을 회복하는 본능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일상성을 갖기 때문이다. 어떤 특별한 사건도 결코 일상의 진부함을 제거하거나 그 내용을 완전히 채우지 못한다. 단지 잠시 일상 위에서 번쩍일 뿐 이내 일상의 진부함에 묻히고 만다. 결국 모든 사건과 비일상은 일상으로 수렴된다. 그러한 수렴이 가능한 것은 모든 인간이 자기보존의 일상성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2) 구조와 행위의 연계로서 일상생활

일상생활은 사회현상이나 변화를 분석하는 데서 구조와 행위를 분

19)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푸른숲, 1997), 34쪽.

20) 코지크, 카렐, 『구체성의 변증법』, 박정호 옮김(서울: 거름, 1985), 58~76쪽.

석적으로 연계하는 것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일상생활세계는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적 조건·제도·질서·규범·규칙 등 구조적 조건이 관철되는 공간이기도 하지만, 개인들이 관계를 통해 그러한 물질적 조건·제도·질서·규범·규칙 등을 해석하고 나름의 방식대로 ‘재전유’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상생활세계는 구조적 강제와 행위의 실천이라는 두 대립적 측면이 상호작용하는 공간이다. 그런 면에서 일상생활세계는 구조가 재생산되는 미시적 상황과 구조를 변화시키는 행위의 가능성이 공존하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연구는 객관적인 사회적 관계와 주관적인 경험세계가 분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실천을 통해 매개되는 하나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공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일상생활의 세계가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의 사회적 교환이 일어나는 가장 기본적인 공간임을 뜻한다. 일상생활은 사회의 지배적인 교환질서의 원리, 교환의 방식, 교환에 대한 문화적 태도 등이 실천되는 공간이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추상적인 이론 차원에서 매개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회적 관계가 어떻게 개인들의 주관적 경험세계 속에서 체험되고 유지·재생산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일상생활 연구는 사회를 구조화하는 다양한 일상적 체계들에 대한 하나의 횡단적인 독해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일상생활 연구는 결코 일부의 비판처럼 구조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연구 전략이 아니다. 일상생활이 사회전체의 구조 속에서 조망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일상생활을 증발시킨 사회구조의 분석이 전문적 용어의 나열에 그치거나 메마른 숫자의 조합에 그치기 쉬운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회구조에 대한 조망이 없는 일상생활의 분석은 잡다한

사실들의 모자이크에 불과할 수 있다. 결국 이 양자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라는 연구전략이 더욱더 중요한 문제이다.

(3) 거시와 미시: 연구의 관찰배율

거시와 미시는 일종의 사회나 현상을 보는 연구의 관찰배율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이 추상화 수준을 높여 사회나 현상을 전체 맥락에서 조망하며 특징을 추출하는 방식이라면, 미시적 접근은 추상화 수준을 낮추고 전체를 이루는 부분 부분에 관심을 집중시켜 제도·정책·노선·권력이 생활세계에서 실천되거나 관찰·수용·굴절되는 방식을 일상의 차원에서 관찰하는 것이다. 가령 비유하자면, 항공기를 타고 위에서 특정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적 특징과 산과 강, 도로 등 부분 부분의 관계를 조망하는 방식이 거시적 접근이라면, 미시적 접근은 지표면에서 구체적으로 그러한 지형에 적응하며 어떤 사람들이 무슨 생각과 어떠한 삶의 방식 속에서 사는지를 살펴본다.

따라서 동일한 연구대상에 대해 이 둘은 관찰배율의 차이를 통해, 하나가 큰 조망의 전체적 윤곽의 특징을 포착하는 것에서 장점을 갖는다면, 다른 하나는 그러한 전체적 윤곽을 현실 삶에서 변화시키거나 전유하고 있는 행위자들을 보여주는 데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둘은 이러한 장점의 측면에서 상호보완적인 것이지 결코 대립적이거나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가령 미시적 접근을 통한 일상생활에 대한 관찰이 없다면 거시적 접근을 위한 추상성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개인들의 일상적 실천에 대한 이해 없이 거시적 관점에서의 특징 포착이 설명력을 갖기 힘들기 때문이다.

북한의 일상생활을 연구하는 데서 우리는 이 거시적·미시적 관점을 적절하게 관찰배율을 조절해서 활용할 수 있다. 거시적 접근을 통해서

일상생활을 둘러싼 주요 환경적 조건을 역사적·공간적·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미시적 접근을 통해서서는 그러한 역사적·공간적·제도적 차원의 환경적 조건들이 어떻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일상생활의 연구는 미시적 접근만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시와 미시의 연계를 통해서 좀 더 입체적인 조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방법론적 매력을 지닌다.

(4) 지배와 저항: 브리콜라주(bricolage)와 일상의 실천

우리는 한 사회의 지배관계나 지배질서, 지배체제를 지배 - 피지배 관계에 입각해서 지배와 저항(순응)이라는 도식을 통해 바라보는 데 익숙하다. 지배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지배의 전략을 구사하는 지배자와 이에 순응하는 피지배자라는 양자구도에서 파악하거나, 역으로 지배체제의 균열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전면화되었을 때라고 보는 방식이다. 결국 지배체제의 변동을 위로부터의 의도와 실천이 보여주는 강제성이나 포섭력, 그리고 민중 차원의 순응·동참 또는 저항 사이의 상호관계를 통해 보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행위 차원에서 지배와 저항(순응)의 행위를 확연하게 구분하여 그것에 고정된 의미를 부여하기란 매우 힘들다. 지위상의 상하관계나 위계질서 상에서는 특정의 사회적 관계가 지배와 순응의 관계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지위나 위계상의 관계가 모든 행위의 성격을 지시하는 것만은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가 실천하고 경험하는 일상에서도 지배(의 행위)와 저항(의 행위)이 그 자체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고정적이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직면하는 매일 매일의 상황과 그 상황에서 임기응변적으로 채택되는 이해관계의 계

산, 자기보존의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이 일상에서는 언제나 뒤섞여 있기 때문이다. 다만 위계나 지위질서 내에서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면모를 가질지 모르나, 일상에서는 충실함 속에서도 나름의 전략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이는 연구자의 관점에서 ‘타자’의 행위(지배하는 행위, 저항하는 행위, 순응하는 행위 등)를 이해하는 문제와도 직결된다.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이 뒤섞여 있는 일상에서 개인의 행위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제나 연구자가 특별하게 주목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이해로 포착될 뿐이다. 실제로 개인의 일상은 그런 의식적·무의식적 선택의 연속적이거나 단절적인 계기의 유기적 과정으로서 하나의 개인적인 고유한 흐름일 뿐이다. 결국 타자는 항상 연구자의 이해에 ‘넘쳐흐를’ 뿐이다.²¹⁾ 그것은 봉기를 주도하는 의식적 행위와 같은 눈에 띄는 비범한 면모를 제외한다면, 보통의 일상에서 개인의 행위는 지배와 저항이란 도식의 어느 양극단에서도 온전히 포착되어 고정적 의미를 획득하기 힘들다는 것을 암시한다.

대중은 언제나 이론적 틀과 이해를 넘는 현실이며 공식적 이데올로기로 그 전부를 포용할 수 없는 대상이다. 오히려 대중은 언제나 정치적·종교적으로 이단적인 존재이며, 표면적으로 공식적 교의를 수용하더라도 항상 그 교의에서 벗어나는 다양성을 갖는다. 어떤 종교도 대중을 하나의 윤리체계로 묶지 못했으며 어떠한 이념도 대중을 영원히 구속하지 못했다.²²⁾ 그런 측면에서 일상에서의 개인의 행위는 ‘사회

21) 레비나스, 엠미누엘,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2004), 84~85쪽.

22)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학적 조명,” 『일상생활의 사회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37쪽.

드라마'의 전면과 후면을 오가며 '가면(persona)'을 바꿔 쓰는 행위이며, 가면 뒤의 얼굴은 지배와 저항의 이분법만으로 포착하기 힘든 모호성을 지닌다. 아마도 그것은 특정한 이해만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실존적 욕망, 즐거움, 괴로움, 좌절 등이 혼합된 얼굴일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북한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 가령 북한주민의 경우 레비스트로스(Claude Levi-Strauss)나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의 비유를 빌리자면 일종의 브리콜뢰르(Bricoleur)로서 끊임없이 제한된 일상생활의 공간 속에서 행위의 창조성을 발휘하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²³⁾ 브리콜라주(Bricolage)란 제한된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요소의 새로운 배열'과 '동일한 재료의 지속적인 재구성'을 통해 혁신적인 것을 고안해내듯 놀랄 정도로 복잡한 문화체계와 실천의 전술 및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상적 실천의 가능성을 뜻한다. 평범한 실천은 확립된 질서에 대해 말없이 집요하게 저항한다. 그러나 그 저항은 급격한 변화를 위한 계획이나 사회변동을 위한 교의 같은 형태를 취하지는 않는다. 공공연한 대결이 분명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일상적 실천 자체의 본질이기도 하다. 따라서 행위자 자신이 목적의식적으로 저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태도의 문제, 즉 순응하고 수용하고 저항하는 민중의 드러난 행위와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그 내부에 은폐되어 있거나 은밀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저항의 전술을 간과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의 전술이란

23)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pp.xx~xxii. 프랑스어 브리콜뢰르란 잡다한 일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브리콜뢰르는 손에 잡히는 것들을 이용해 집을 고치거나 물건을 정리하거나 고장난 것을 수리하는 데 능숙한 사람이다. 제한된 조건에서 다양한 손재주를 부려 문제를 해결하는 임기응변가라고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내는 반대의 표시, 저항의 표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상에서 감행하는 다양한 실천이 지배 전략이 기대하고 의도한 대로 실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르게 해석하고 전유하는 문화적 태도를 의미한다.

그것은 주체와 타자, 지배와 피지배 관계에 대한 각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문화적 해석의 과정이기도 하다. 지배 권력이 강요하는 체계를 ‘재채용(reemploi)’, ‘은유화’, ‘침투(insinuation)’ 형식으로 횡단하는 것에 대한 관심과 주목이다.²⁴⁾ 일종의 ‘반(反)훈육’,²⁵⁾ 즉 체제가 일상생활을 완전히 식민지화하는 것의 불가능성, 오히려 권력의 작동 방식을 소비하는 개인의 실천에 주목하는 것이다.²⁶⁾ 이는 규율의 전면적 관철을 교묘하게 회피하고 지배의 전략에 탄죽을 걸고 좌절시키는 작업이다.²⁷⁾

24) 드 세르토는 이런 민중문화를 ‘글 쓰기’와 ‘글 읽기’, ‘걷기’, ‘소비’ 등을 통해 설명한다. 가령 ‘글 쓰기’가 지배자가 규율을 기표하는 텍스트이고 지배자의 진리를 설계하는 것이라면, ‘글 읽기’는 텍스트 내에서의 ‘밀렵(braconnage)’이다. 즉, 지배 텍스트의 권위를 수용하지만 읽는 방식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도록 해독하는 창조적 과정이라는 것이다. 글 쓰기가 사회적 권력의 특권적 행위라면 글 읽기는 그들의 영토에서 의미들을 밀렵하는 행위이다. 지배 텍스트를 전환, 전도, 변환, 전복하고 비틀면서 의미변환적 수사(trope)를 사용하고 우회하는 술수의 채용방식이 밀렵이다.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pp.xx~xxii.

25) 이런 관점에서 드 세르토는 미셸 푸코(Michel Foucault)를 비판한다. 전방위 감시 체계로서 파놉티콘(panopticon)은 권력 주체의 ‘술수’를 보여주지만, 드 세르토는 그것을 ‘거스르는 힘’, 즉 ‘마주보는’ 역감시(anti-discipline) 과정을 통해 횡단과 비틀기, 전복, 봉괴의 가능성을 본다.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 pp. xiv~xv.

26) 포스터, 마크, “미셸 드 세르토와 소비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새로운 문화사』, 조지형 옮김(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6), 178쪽.

27) 다양한 저항적 실천 전술에 대해 드 세르토는 ‘가발 쓰기(la perruque)’, 즉 ‘남몰래 다른 일하기’란 개념을 부여한다. 드 세르토는 공장노동자의 예를 들어 이 개념을 설명한다. ‘가발 쓰기’에 몰두하는 노동자는 재료를 슬쩍 훔치거나 공작

결국 일상에서 대중이 행하는 실천(practice)²⁸⁾은 지배집단이 부과한 체계를 자신의 이익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무한히 변환하는 전유(appropriation) 과정을 포함한다.²⁹⁾ ‘침묵하는 다수’인 인민이 권력이 부과한 기존질서의 골격을 재채용(ré-emploi)하고 그것에 내부적 변형을 가하면서 일상적 투쟁과 저항을 실천하는 문화, 이것이 바로 ‘일상의 정치’이다. 권력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소비한다는 관점이 필요한 것이다. 이는 약자의 보이지 않는 무기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주제영역과 자료

(1) 일상생활의 주제영역

북한 주민 생계활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주민에 대한 일상적 통제가 이루어지는 체계이자 주민들이 제도와 일상적인

기계를 자기 목적으로 이용하며, 시간을 자유와 창의력, 정확하게는 이익이 아닌 공작활동에 집중한다. 노동자의 유일한 목표는 작업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표시하는 한편 시간을 이런 방식으로 소비함으로써 다른 노동자나 자기 가족과의 연대성을 확인하고, 감시받는 생산에서 창조적 술수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교활하게 누리는 것이다. 공장의 생산경쟁을 다른 노동자와 공모하여 무력화시키는 노동자는 기존 질서의 본거지에서 ‘자신을 인정받기’에 성공한다. ‘가발 쓰기’는 현재의 산업공간 질서에 다른 시공간의 민중적 전술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2004), 232~233쪽.

28) 밑으로부터의 관점을 강조하는 ‘전술(tactics)’에 대한 드 세르토의 개념은 피에르 부르디외(P. Bourdieu)의 아비투스(habitus) 개념과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드 세르토는 아비투스 개념을 비판하는데, 이 개념에는 평범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식하지 못한다는 함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뷰크, 피터(Peter Buke), 『문화사란 무엇인가』, 조한욱 옮김(서울: 도서출판 길, 2005), 134~135쪽. 그런 면에서 드 세르토의 전술 개념은 실천과 저항을 의식적으로 조작해내는 행위자의 능동성에 무게를 둔다고 볼 수 있다.

29)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209쪽.

대면 관계를 갖게 되는 통로인 관료, 공적인 조직문화를 통해 일상생활의 한 부분을 구성하는 노동, 주민 대부분의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규율화하는 교육 등이 일상생활의 중요한 주제영역이다. 이와 함께 군대조직의 일상생활도 중요한 주제영역에 속한다. 북한주민의 구체적인 일상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주로 볼 경우, ① 지역(행정·관료단위, 마을·도시 공동체단위 등), ② 시장(장터, 소비단위, 시장교환 및 유통 경로 등), ③ 작업장(공장, 농장, 학교, 군대 등 생산 및 조직단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체제 동학과 일상생활세계와의 관계를 통해 주제를 설정할 수 있다. ① 지배와 저항, ② 국가기구와 일상공동체, ③ 이데올로기와 일상담론, ④ 통치문화와 일상문화, ⑤ 국가 상징체계와 일상적 상징제의 등이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국가가 부여하는 제도, 상징, 조직, 규율, 문화 등을 일상생활 차원에서 북한주민이 어떻게 수용하고 전유하는지를 보여주는 구도이다. 이 두 축은 상호 충돌하거나 갈등을 양산하지만 상호 침투하면서 체제 변화를 만들어가는 사회적 과정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기초이며 사회적 관계를 통해 영위된다는 차원에서 주제영역을 설정할 수 있다.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는 교환형태(호혜, 재분배, 시장)를 기초로 연결망을 구성하는 정보유통 수단 및 내용에 주목하는 것이다. ① 주민 사이의 공식〔공간(公刊) 등〕, 비공식(소문, 유비통신 등) 정보유통 경로와 내용, ② 시장유통 및 교환체계, 즉 생산·유통·소비경로와 가격형성 메커니즘을 통한 정보유통, ③ 공동체 연대와 사회자본, 즉 가족·친척, 동료집단, 관료체계 등을 통한 정보유통 등을 보는 것이다.

(2) 자료조사 및 분석

우선 문헌자료의 경우, 첫째 기존에 활용되던 북한 문헌자료를 일상생활 연구의 시각에서 재해석할 가능성을 모색하고, 둘째 기존 북한 문헌자료 중 일상생활세계와 관련해 주로 활용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재분류하며, 나아가 기존 북한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자료를 신규로 발굴해 분석·체계화하면서 일상생활 연구의 자료를 확보한다.

두 번째로 구술자료의 경우,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직접 생성한다. 이를 위해 각 주제영역을 관통하는 공통질문 및 주제별 질문을 각각 구조화된 질문지와 설문지 작성을 통해 다양한 관련자를 직접 인터뷰하고 현장 조사함으로써 일상생활세계를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직업별, 탈북 동기 및 국내 입국 시기별로 분류하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주민과의 접촉이 빈번한 북·중 접경지역 거주민, 중국을 왕래하는 북한 내 화교, 다양한 목적으로 북한에서 장기체류한 경험자 등에 대한 직접 인터뷰도 탈북자들의 관점과 다른 관찰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양적 자료는 북한연구에서 활용도가 가장 낮다. 주로 북한 공간문헌에서 간헐적으로 제시된 통계치나 이에 근거를 둔 연구자의 추정치가 간접적으로 활용되어왔다. 그나마도 주민 일상생활세계 보다는 거시적인 경제지표 등으로 한정된다. 이는 실제 사회조사의 어려움, 직·간접적인 통계 표본의 부족, 북한 통계자료에 대한 불신, 양적 자료에 대한 관심의 부족 등 때문이다. 이의 대안으로 탈북자 인터뷰를 통해 주제별로 일상생활세계의 다양한 경험적 수치들을 조사함으로써 생활세계에 대한 양적 자료의 부족을 일정 부분 해소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가령 각종 생필품의 가격 변동, 생계비 변동, 시장 접근 횟수 및 시장의 지리적·사회적 거리, 운송 및 유통비용, 소상공

생산비용, 조세 및 준조세액, 뇌물공여 액수 및 횡수, 개인 착복 및 불법 유출량과 횡수, 실교육비, 실배급량 및 횡수, 개인 연결망의 지리적·사회적 거리 등을 조사하는 방식이다.

한편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는 기법과 연구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문헌자료, 구술자료, 양적 자료 등을 각각의 자료 성격에 따라 분석 및 활용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분석모형을 설계하는 것이다. 우선 문헌자료의 경우 대부분 국가가 생산하는 담론에 속한다. 이 공식문헌을 통해 주민 일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심층적 내용독해나 ‘예외적 정상’, ‘이례’를 찾는 기법이 필요하다. 일탈이나 비정상성으로 지목되는 부분들을 찾아 주민들의 실천 및 일상과 연계해 분석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구술자료도 구술 내용의 사회적 맥락과 구술자의 간접경험 및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분석적으로 여과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 구술자의 직업, 계층, 지위, 지역, 성별 등에 따른 분석적 여과장치가 요구되며, 간접정보의 생성 경로 및 사회적 맥락에 대한 분석적 고려가 필요하다. 한편 문헌자료, 구술자료, 양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차원에서 ‘방법론적 삼각측량(methodological triangulation)’ 기법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각 자료의 특징을 살리면서,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자료 성격과 내용 차이를 일정한 분석적 여과장치를 통해 걸러내고, 상호 교차비교(cross-checking)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체제 동학과 일상생활세계를 연계하는 방법론의 측면이다. 체제동학을 정치적 지배체계, 경제적 재분배체계, 이데올로기 및 담론체계 등의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체제를 작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 정의할 수 있다. 체제이행 및 변화는 체제 동학을 구성하는 요소가 일정한 기능적 이상이나 질적 변화를 가질 때 나타나는 체제

성격의 변화를 의미한다. 체제동학의 구성요소와 체제이행의 변수를 체계화하고 일정한 단계별로 이 변수들이 일상생활세계와 어떻게 연동되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90년대 이후 기존 북한체제의 동학을 구성했던 요소들이 기능적으로 일정한 변화를 보인다. 가령 경제적 재분배체제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이데올로기 및 담론체제가 과거와 같은 정당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 일상에서도 정치적 권력관계가 새로운 방식으로 재전유되는 측면이 발견된다. 이런 현상들은 북한체제가 사회적 관계에서 내용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생활세계의 공간인 지역, 장터, 작업장과 시장, 관료, 노동, 교육의 영역은 지배 권력의 책략과 주민 일상이 만나는 공간이며, 주민 대중이 지배 기획을 재채용하고 은유함으로써 또는 침투과정을 통해 새로운 변형을 일으키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다. 일상생활 연구는 권력과 일상, 체제의 거시적 동학과 일상이 상호작용하는 역동성을 중시하며, 둘을 연계하는 이론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일상생활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상의 정치가 지배의도 및 강권과 어떻게 충돌했고,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미시적 과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미시적 역동성이 체제변화에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대한 상관 모델을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 접수: 10월 29일 / ■ 채택: 12월 4일

참고문헌

- 강수택, 『일상생활의 패러다임』(서울: 민음사, 1998).
- 고유환 엮음, 『로동신문을 통해 본 북한 변화』(서울: 선인, 2006).
- 김귀옥 외, 『북한 여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서울: 당대, 2000).
- 김병로·김성철, 『북한사회의 불평등 구조와 정치사회적 함의』(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8).
- 김종욱, “북한의 관료체제와 지배구조의 변동에 관한 연구”(동국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레비나스, 엠마누엘, 『시간과 타자』, 강영안 옮김(서울: 문예출판사, 2004).
- 박재환, “일상생활에 대한 사회적 조명,” 『일상생활의 사회학』(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4).
- 박현진, 『현대 북한사회와 가족』(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3).
- 박형중·정세진, “‘고난의 행군’과 북한주민의 일상생활 변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회 엮음, 『북한주민의 일상생활과 대중문화』(서울: 오름, 2003).
- 버크, 피터, 『문화사란 무엇인가』, 조한욱 옮김(서울: 도서출판 길, 2005).
-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서울: 나남출판, 1995).
- _____,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서재진·조한범·장경섭·유팔무, 『사회주의 지배엘리트와 체제변화』(서울: 생각의 나무, 1999).
-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엮음, 『북한의 사회문화』(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 손기웅·길태근, “북한 노동자문화 연구,” 『통일문화연구(下)』(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송광성 외, 『북한 청소년 생활』(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 스멜서, 닐, “기술적 묘사와 인과적 설명에 관한 비교분석 방법론,” 한국비교사회연구회 엮음, 『비교사회학: 방법과 실제 I』(서울: 열음사, 1990).
- 양문수 외, 『북한의 노동』(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7).

- 이금순,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통일문화연구(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이남복, “루만의 구성주의 체계이론: 실재론과 관념론을 넘어서,” 『담론 201』, 10권 2호(2007).
- 이정윤, “북한 노동자의 일상생활과 문화재생산: 노동자 순응, 갈등, 저항 행위를 중심으로”(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석사학위논문, 2003).
- 이진경, 『근대적 시·공간의 탄생』(서울: 푸른숲, 1997).
- 임순희,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장세룡, “미셸 드 세르토의 일상과 민중문화,” 『서양사론』, 제82호(2004).
- 전현준,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정세진, 『‘계획’에서 시장으로: 북한체제변동의 정치경제』(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0).
- 조정아, “산업화 시기 북한의 노동교육”(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2003).
- _____,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1호 (2004.4).
- _____, 『북한의 작업장 문화: 순응과 저항의 스펙트럼』(서울: 통일연구원, 2005).
- _____, 『경제난 이후 북한 문학에 나타난 주민생활 변화』(서울: 통일연구원, 2006).
- 조한범,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서울: 통일연구원, 2005).
- 조한혜정, “분단과 공존: 제3의 공간을 열어 가는 통일교육을 지향하며,” 조한혜정·이우영 엮음, 『탈분단 시대를 열며』(서울: 삼인, 2000).
- 주강현, “북한 주민생활에 나타난 전통문화적 요인 연구,” 『통일문화연구(下)』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_____, 『북한의 민족생활풍습』(서울: 민속원, 1999).
- 최원규 외, 『북한 도시의 형성과 발전: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4).
- _____, 『북한 도시의 위기와 변화: 1990년대 청진, 신의주, 혜산』(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6).
- 코지크, 카렐, 『구체성의 변증법』, 박정호 옮김(서울: 거름, 1985).
- 포스터, 마크, “미셸 드 세르토와 소비주의,” 『포스트모던시대의 새로운 문화사』,

- 조지형 옮김(서울: 이화여대출판부, 2006).
- 홍민, “북한의 사회주의 도덕경제와 마을체제”(동국대학교 대학원 북한학과 박사학위논문, 2006).
- Alena V., Ledeneva, *Russia's Economy of Favours: Blat, Networking and Informal Exchange*(Cambridge·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 Arnstburg, Karl-Olov and Thomas Borén(ed.), *Everyday Economy in Russia, Poland and Latvia*(Stockholm: Södertörns högskola, 2003).
- Bovone, Laura, “Theories of Everyday Life: a Search for Meaning or a Negation of Meaning?,”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 Brooks, Jeffrey, *Thank You, Comrade Stalin!: Soviet Public Culture From Revolution to Cold War*(New Jersey: Princeton Univ. Press, 2000).
- Christian, David, *‘Living Water’: Vodka and Russian Society on the Eve of Emancipation*(Oxford: Clarendon Press, 1990).
- de Certeau, Michel, *The Practice of Everyday Life*(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1984).
- de Querioz, Jean Manuel,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as a Perspective,”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 Fitzpatrick, Sheila, *Stalin's Peasant: Resistance and Survival in the Collectivization* (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_____, *Everyday Stalinism: Ordinary Life in Extraordinary Time*(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Hoffman, David L., *Peasant Metropolis: Social Identities in Moscow 1929~1941*(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1994).
- Huang, Shu-min, *The Spiral Road: Changes in a Chinese Village Through the Eyes of a Communist Party Leader*(Second Edition)(Boulder: Westview Press, 1998).
- Humphrey, Caroline, *The Unmaking of Soviet Life: Everyday Economies after Socialism* (Ithaca &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Karen, Petrone, *Life Has Become More Joyous, Comrades: Celebrations in the Time of Stalin*(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00).
- Lane, Christel, *The Rites of Rulers: Ritual in Industrial Society The Soviet Case*

- (Cambridge·New York·New Rochelle·Melbourne·Sydne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Maffesoli, Michel,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Epistemological Elements,” *The Sociology of Everyday Life, Current Sociology*, vol.37, no.1(spring, 1989).
- Shlapentokh, Vladimir, *Public and Private Life of the Soviet People: Changing Values in Post-Stalin Russia*(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Smith, Michael G., *Language and Power in the Creation of the USSR, 1917~1953* (Berlin·New York: Mouton de Gruyter, 1998).
- Viola, Lynne, *Peasant Revels under Stalin: Collectivization and the Culture of Peasant Resistance*(New York·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 _____, *Contending with Stalinism: Soviet Power and Popular Resistance in the 1930s*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2002).
- Wood, Elizabeth A., *The Baba and the Comrade: Gender and Politics in Revolutionary Russia*(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7).

A Study on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Meaning and Methodology

Park, Sun Song(Dongguk University)

Koh, Yu-Hwan(Dongguk University)

Hong, Min(Dongguk University)

This article is to emphasize a study on everyday life as a new perspective of understanding North Korean society's changes and continuity. The importance of everyday life approach lies in both that it proposes a new research paradigm for a new research area/subject and that it improves existing methods of North Korean Studies. In fact, the everyday life approach is based on the methodological self-reflection on the tendency of prevailing North Korean studies, which placed excessive emphasis on the leadership, ideology, and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After we presented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a study on everyday life in North Korea, we examined the points at issue concerning everyday life approach. We also tried to deal with the

meaning/direction and methodological problems of everyday life studies on North Korea. The key claim of this paper is that a study on everyday life dares to overcome the dichotomy between everyday-life and non-everyday-life, between structure and action, between macroscopic and microscopic, between domination and resistance.

Keywords: Everyday life, Methods of North Korean Studies, Methodological Self-reflection, Dichotomy of structure and action, Macro-structural changes and microscopic dynamics